

[기획] >> 4면
무전공 입학 전형

[기획] >> 5면
강의평가의 딜레마

[사회문화] >> 8면
불법체류자의 비애

[학술] >> 9면
한중 잠정조치수역

무전공 입학 전형,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무전공 입학 전형의 현황△무전공 입학 전형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우리학교 폴란드학과, '故김용덕 교수 장학회' 제2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지난달 10일 우리학교 폴란드학과는 '故 김용덕 교수(이하 김 교수) 장학회' 제2회 장학생으로 김민서(동유럽·폴란드, 이하 김 씨) 씨를 선발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故 김용덕 교수 장학회'는 지난 2022년 별세한 김 교수를 기리기 위해 발족된 장학기금으로 폴란드 역사 및 정치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학교 폴란드학과 제1회 졸업생인 김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폴란드 역사학자이자 동유럽 역사 및 정치 전문가였다. 재직 당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 장학회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사학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했으며 폴란드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은 우리학교 폴란드학과 학과장은 "교수님의 헌신과 노고 그리고 폴란드학과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이라며 "이 장학금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신 김용덕 교수님 못지않은 뛰어난 후학들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 제2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 씨는 우수한 학업 성적과 봉사 정신 및 학과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폴란드어를 공부하며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 장학금으로 학문적 길을 계속 이어가려는 격려를 받은 것 같아 큰 힘이 된다"며 "故 김 교수님의 존함이 담긴 장학금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안고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폴란드학과는 국내 유일의 폴란드학과로서 언어 교육을 넘어 △경제사 △문화사 △역사 △정치 등 폴란드 전반에 대한 융합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학과는 1987년 설립 이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며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다양성에 부응하는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우리학교 GTEP사업단, 산업부·무역협회장상 수상

지난 3월 28일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은 코엑스(COEX)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GTEP 제18기 수료식 및 제19기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선 1년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18기 학생들의 우수사례 발표와 활동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수료생들에게 △무역 전문가 인증서 △상장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제19기 신입 단원의 선서로 발대식이 마무리됐다. GTEP사업단 소속 김강현(상경·국통 16) 씨와 김다원(통번역·태국어 19) 씨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았다.

GTEP사업단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무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미용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5(Cosmoprof Worldwide Bologna)'에 협력업

체 4곳과 함께 참가해 트라이버(Buyer) 상담 △아랍어·영어·이탈리아어 통역 △제품 소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29일까지 모나코(Monaco)에서 열린 'AMWC(세계 미용·안티에이징(Anti-aging) 의학 학술대회) 2025'에 의료미용기기 전문기업 아윤메디(Ayoonmedi)와 함께 참가해 무역 실무 현장을 체험했다. 국내에선 지난 3월 27일~30일까지 수원에서 열린 '수원메가쇼(Megashow) 2025 시즌 1'에 알파디스플레이테크(Alpha DisplayTech)와 함께 참가하여 △고객 응대 △시연 활동 △제품 홍보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S&S는 자동차 부품 생산 및 가공 전문 그룹사로, 수십년 간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격을 지향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용두용미 정신으로 반세기,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龍頭龍尾)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적 기업
S&S 그룹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사람, 아이템,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로 완성되는 S&S 혁신
- 글로벌 스마트 경쟁력 확보 (O, C, D, A/S)
- 디지털 트윈 기술과 시로 구현하는 스마트팩토리의 미래
- "항공에서 방산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지평"
- 노인 복지 서비스 혁신 및 품격 있는 새로운 노인 문화 창조



우리학교 태국학·태국통번역학과, 송끄란 축제 및 태국어 낭독대회 성료

지난달 4일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학과와 태국어 통번역학과는 주한태국대사관 및 주한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2025 송끄란(Songkran) 축제 in HUFs'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서울 소재 유명 타이 레스토랑(Restaurant) 5곳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약 300여 명이 참여하여 태국의 전통문화를 즐겼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의 태국 팝(Pop) 공연△태국 전통춤 '람 우아이펀(Ram Uay Phon)'△WBC 무에타이 코리아 선수단의 무에타이 시범 등 다채로운 무대로 시작됐다. 이어 열린 축식에서 참석자들은 향유 섞인 물을 뿌리며 새해 복을 기원하는 등 태국의 송끄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태국대사관은 전통차 '차옌(Cha yen)'을 제공했으며 후원 레스토랑들은 다양한 태국음식을 제공했다.

타니 쟁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는 축사에서 "유네스코(UNESCO)가 2023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송끄란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며 "매년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는 우리학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우리학교 태국어통번역학과 학과장은 "송끄란 축제는 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공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태국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태국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전공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



▲제4회 M.L. 분르아 텡파야썬완 재단 배 태국어 낭독대회 모습

국어전문교육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당일 오전엔 '제4회 M.L. 분르아 텡파야썬완(Mom Luang Bunlue Thepphayasuwan) 재단 배 태국어 낭독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태국의 △신라빠쎈(Silpakorn)대학교△탐마삿(Thammasat)대학교△

M.L. 분르아 텡파야썬완 재단과 우리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다. 태국어를 바르고 아름답게 구사하는 우수 학습자를 선발하기 위한 본 행사는 이번엔 우리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총 13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상은 최혜선(아시아·태국)씨가 수상했다. 이어 Phoebe Tan Jiayi(아시아·태국) 씨와 문지연(통번역·태국어)씨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고은심(통번역·태국어)△김민호(아시아·태국)△배승열(아시아·태국)△황은지(아시아·태국)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신근혜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은 환영사에서 "태국어 낭독대회는 △신라빠쎈대학교△탐마삿대학교△M.L. 분르아 텡파야썬완 재단과 우리학교 간의 오랜 협력과 끈끈한 우정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며 "본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가 한국에서 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태국어와 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우리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식 개최, '100년 외대' 도약 다짐

지난달 1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7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최호성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광호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의 학교 연혁 보고에 이어 △김종철 이사장의 기념사△박정운 총장(이하 박 총장)의 기념사△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박정운 총장은 기념사에서 "우리학교는 한국과 세계를 가장 먼저 이어준 대학으로 이제 '100년 외대'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교육·연구 환경 혁신△반도체전공 신설△자유전공입학제 도입△AI 융합 대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선 동원교육상 시상으로 장기간속자와 우수 교원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동원교육상은 우리학교 교육 및 학문 발전에 헌신한 교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해엔 신기일 우리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HUFs AWARD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및 인사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곽태환 Eastern Kentucky University 명예교수(영어 57, 이하 곽 교수)△김중호 HK Produce Group 대표(서양어·독일어



▲우리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식 모습

89, 이하 김 대표)△故류정열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하 류 교수)△박헌택 남정장학재단 이사장(영어 65, 이하 박 이사장)△이영우 ㈜한길통상 대표이사(동양어·마인어 68, 이하 이 대표) 등 5인이다.

곽 교수는 통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에서 외교·통일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남기주동문회 이사장으로서 장학금 기부와 등

문 활동을 통해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 본사를 둔 농산물 생산·유통 기업 HK Produce Group을 글로벌 브랜드(Brand)로 성장시켰으며 우리학교 탈북학생 장학금 출연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류 교수는 1965년 아랍어과 창설에 기여한 중동학 연구의 개척자로 유엔총회 대표 및 요르단 명예영사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중동 외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박 이사장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2006년 남정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금 선발과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매 학기 장학금 기탁을 통해 모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주방용품 및 과학기기 유통 기업 ㈜한길통상을 이끌며 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외대 동문산악회와 국제무역인클럽 회장을 역임하며 동문사회 결속에도 헌신했으며 '한길 장학금'을 통해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중남미 생태문명 포럼 개최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Hotel)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중남미 생태문명 포럼(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중남미 외교·기후 전문가와 관련 분야 차세대 연구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당 포럼엔 △대학원생△학부생△지역인문학센터 강사진을 포함한 참가자들을 비롯해 △두정수(전 파나마 대사)△신승철(전 베네수엘라 대사)△전홍호(전 코스타리카 대사)△정내권(환경·기후변화 전문외교관) △추원훈(전 엘살바도르 대사), △추중연(전 콜롬비아 대사) △최연중(전 우루과이 대사)△하상섭(국립외교원 교수) △한병길(전 페루 대사·현 한·중남미협회 회장) 등 중남미 지역의 외교 및 기후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1부 세션에선 추중연 전 콜롬비아 대사가 '안데스(Andes) 지방의 코카(Coca) 재배와 마약 문제'를 발표했다. 이어 신승철 전 베네수엘라 대사가 '차베스(Chávez)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생태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2부 세션에선 정내권 환경·기후변화 전문외교관이 '지속가능시장: 생태문

명의 기반'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가 '트럼프 2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Governance) 변화와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현 한·중남미협회 회장인 한병길 전 페루 대사는 '한·중남미 관계와 생태문명 협력'을 다뤘다. 발표 이후엔 학생들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생태문명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중남미 지역의 환경과 생태문명을 중심으로 한·중남미 간 협력 가능성을 학술적·정책적 차원에서 모색했으며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중남미 지역의 환경과 생태문명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심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우리학교 TESOL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입학설명회 개최

우리학교 TESOL대학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 후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선 TESOL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입학 전형과 함께 영어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에 특화된 'Language Program Management Certificate(이하 LPM 자격증)'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LPM 자격증은 영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과정이다. 국내에선 우리학교 TESOL대학원이 유일하게 해당 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TESOL대학원 입학생들은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과 함께 세계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TESOL대학원은 실용 중심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됐다. 현재 English Language Teaching(이하 ELT) 학과와 ELT Materials & Technology 학과를 운영 중이다. 수업엔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기술을 반영한 교과목이 포함되며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학년도 후기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5월 24일에 치러진다. 누리집에선 임시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 TESOL대학원장은 "TESOL대학원은 실용 중심 커리큘럼과 세계적 교육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TESOL대학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보궐선거로 다시 세운 총학생회, ‘내일:로(溫)’가 이끈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투표를 통해 제46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내일:로’가 최종 당선됐다. 단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내:일로’는 투표율 42.9%를 넘겼다. 올해 우리학교 제13대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내일:로’의 행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일:로’가 그럴 미래를 알아보자.

◆총학생회 당선

지난 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된 제 46 대 총학 선거에서 3,146명의 학우가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42.90%로 △기권·무효표(4.90%)△반대(4.90%)△찬성(90.21%) 기록함에 따라 총학생회장 황승우(공과·전자 19)와 부총학생회장 조준형(통번역·아랍어)이 기호 1번 ‘내일: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음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 당시 진행된 정견토론회에선 이들이 그려나가고자 한 총학의 비전(Vision)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번 총학은 수년간 제기돼 온 통폐합 학과 수업권 보장과 캠퍼스 간 통학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건물 개방 시간 확대△실질적인 제휴 서비스△이공계 실험실습비 지원 증대 △자취생을 위한 주거 지원 패키지(Package) 등 실질적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총학은 통폐합 학과와 관련해 “전공 과목 수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본전공 수업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저학년 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이종전공생과 본전공생 간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과 학생회와 긴밀히 소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현재 캠퍼스 간 이동이 사실상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출

퇴근 시간대 통학버스를 증편하고 2~3시간 간격의 정기 노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이와 같은 공약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설캠 소속인 A씨는 “지금은 글캠 수업을 듣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 아예 고려도 못한다”며 “캠퍼스 간 이동이 원활해진다면 이종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유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통폐합 학과 학생들을 위한 수업권 보장과 관련해 B씨는 “과목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체감돼서 걱정이 컸는데 저학년 과목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반갑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캠퍼스 간 연계성 강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일부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은영(CT융합·투월 24)씨는 “자취생 주거지원 패키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까지 복잡하게 엮여있는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글캠 FBS 방송국 또한 ‘건물 개방 시간 확대’에 관한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총학은 “작년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24시간 개방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이미 경비 업체와 협력해 보안 문제를 해결했고 추가 예

산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충분히 확보된 공약임을 밝혔다. 한편 총학이 추진하는 제휴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선 제휴를 통해 연계되는 제휴금의 용처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대알리에서도 관련 글원이 “제휴비가 감사 대상이 아니고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학은 작년에 해당 금액의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세칙 변경안을 추진한 바 있고 제휴비를 자치회비로 넣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총학이 모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던 만큼 ‘소통하는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년간 대두됐던 통폐합 학과 수업권 보장 문제와 교내 와이파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선 ‘총장과 지속적인 대화 시도와 소통 창구 마련’ 공약을 제시하며 시설 자취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공계열 실험비 확충과 건물 개방 등 학생 요구에 반영된 공약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총학의 학생복지 관련 공약을 듣고 고수연(국가전략·체코어 24)씨는 “이번 총학 공약 중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관련된 내

용이 많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김재우(자연·전자물리18)씨는 “그동안 이공계 학생들이 실습비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공약에선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보여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제시된 공약이 다시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출됐다. B씨는 “24시간 건물 개방은 보안 문제나 관리 인력 부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며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C씨(CT융합·투월 24)도 “용인시와 대학교 총학생회 간의 소통 창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외진 위치에 있는 학교의 소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교내가 아닌 교외로 확장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총학이 어떤 방식으로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해 나갈지 주목된다.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집행이야말로 ‘소통하는 총학’이란 목표에 다가서는 길이 될 것이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후속보도

연기 없는 캠퍼스를 위해... ‘흡연 구역’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1076호에선 교내 흡연구역 지정 및 협연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선 △교육과 지원 제공△명확한 구역 수립△흡연 구역 지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내 흡연 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에선 “인문관 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흡연 문제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흡연 문제의 현황

현재 양 캠퍼스에서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교내 흡연 관련 문제 중 공통적인 부분은 간접 흡연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캠의 경우 비흡연자 중 과반 이상이 사회과학관 및 인문과학관 옆의 흡연공간에서 간접 흡연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협연권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1%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47%의 학생이 공학관과 백년관 옆에서 간접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글캠의 경우 이미 흡연 부스(Booth) 설치를 통해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시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은 에타를 통해 “흡연 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야외에서 흡연하느냐”고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흡연자인 A씨는 “기숙사 근처에 흡연 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간이 아닌 기숙사 카페의 진입로에 길게 서서 담배를 피는 상황

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단속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론 흡연자에 비해 흡연 부스의 수용 가능 인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흡연자인 B씨는 “흡연 부스가 작고 수가 적어 쉬는 시간에 가면 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많은 인원이 몰릴 때는 문이 여닫힐 때 밀폐 공간에 있던 연기가 인도로 퍼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죄송한 마음도 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각 건물에 지정된 흡연 장소의 면적이 충분하지 못한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흡연자인 C씨는 “흡연 장소가 부족하고 멀다 보니 시간에 쫓겨 아무 곳에서도 급히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재 흡연 구역 운영은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흡연장소의 수용 면적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게되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설캠의 경우 수업을 듣는 공간과 흡연 장소 간의 거리가 충분히 보장돼있지 않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흡연 구역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32.4%가 “건물과의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실제로 설캠에 위치한 대다수의 건물

과 흡연장소 간의 간격이 좁아 지속적인 항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학교 시설 관리 직원은 “법학과관과 본관 사이 자전거 보관소에서 흡연할 경우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통해 곧바로 건물 내부로 유입돼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글캠의 경우 공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의 흡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흡연 부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는 설캠에게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중앙대학교의 경우 담배소비자협회로부터 흡연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흡연자들의 쾌적한 흡연환경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설캠의 경우 애초부터 흡연 부스 자체가 설치돼있지 않단 점을 고려해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함께 기존 흡연 장소를 흡연 부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설캠 총학의 경우 지난달 9일 경희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총학과 함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흡연 구역 구획화를 위한 투자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설캠 시설관리팀장은 “현재 설캠에 설치된 흡연 구역은 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제46대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공간”이라며 “학교 차원에서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별도의 흡연 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내 흡연 문제는 더 이상 흡연자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협연권 모두 존중되어야 할 마땅할 권리인 만큼 또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무전공 입학 전형,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입됐으며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가능케 했던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 및 자치 활동

참여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지난 3월 '통합 모집들아 우리끼리라도 친해지자'란 글이 올라오며 통합 모집의 문제점이 언급됐다. 현재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서 있는 △무전공 입학 전형의 현황△무전공 입학 전형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무전공 입학 전형의 현황

우리학교는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에 발맞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행된 무전공 입학은 크게 자유전공학부신설을 통한 인원 모집과 각 단과대학 별 통합 모집 전형 신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우리학교 설캠에도 자유전공학부가 존재했으나 2013년으로 폐지됐다가 2025학년도에 다시 신설됐다.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를 자유롭게 탐색한 뒤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래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학부는 △제1전공으로 설캠에 존재하는 기존 학과를 선택하는 '전공선택 트랙'△융합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융합 트랙'△학생 본인이 만든 새로운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융합 트랙'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통합 모집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단과대학 소속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진학 시 해당 단과대학 내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대학 통합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영미문학·문화학과△영어통번역학과△ELLT학과 중 하나를 제1전공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무전공의 입학 전형의 문제점

그러나 무전공 입학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론 선호되는 특정 전공에 신청 인원이 몰리게 되는 이른바 '전공 쏠림' 현상이 있다. 조유빈 자유전공학부 25학번 과 대표자(이하 조 과 대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공 선택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통합 모집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학대학의 경우 통합 모집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과목 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23명 중 19명이 특정 학과의 전공 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로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됐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과 대표는 "회칙의 부재 및 감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회비를 아직 걷지 못했다"며 "올해 신설된 과이다 보니 아직 원활한 학

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고 9월경에 열릴 예정인 창립총회 이후에야 해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학생회 운영 문제 외에도 2학년 진급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2학년년부터 특정 전공을 선택함에 따라 더 이상 자유전공학부 소속이 아닌 해당 전공에 소속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에 뒤늦게 합류하게 됨으로써 학과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 모집생들은 △과방 이용△소모임 및 동아리 참여△소외감△학부 사업 참여△학생회비 납부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모집생 A씨는 "처음 학교에 가서 과방을 가려 했는데 과방 명패에 학과명만 존재해 통합 모집생들은 어느 과방으로 들어가야 할지 혼란이 왔다"고 밝히며 과방 이용 측면에서 겪은 불편함을 이야기 했다. B씨의 경우 "특정 소모임에 가입하고 싶는데 아직 통합 모집 소속이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희망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이 아쉽고 2학년 때 소모임을 들어가면 부담이 있어 소모임 가입이 꺼려진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통합 모집생들의 자치 권리 실현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통합 모집생들의 경우 아직 특정 학과를 선택하지 않아 어느 학과의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과 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 통합 모집생 C씨는 "평상시 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더불어 최근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 시험 대비 사업을 진행하는 걸 봤

다"며 "하지만 통합 모집생이라서 어느 학과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단 점이 아쉬웠으며 단과대 차원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느낀 소외감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는 1학년 동안 '자유전공학부'로 소속이 표기되지만 2학년 진학 시 인문사회계 23개 학과 및 컴퓨터학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전공학부 00학과' 형태로 소속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선택한 경우 '자유전공 경영학과'로 표기된다. 이는 표기명만 추가 되는 것이지 자유전공학부라는 소속은 유지되기에 1학년 때 진행 했던 소모임이나 자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통합 모집생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선 기존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제도적 보안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상경대학은 지난 2월 27일 비상 상경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상경대학 통합 모집 자치위원회(이하 상통위)를 구성하였다. 상통위는 상경대학 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통합 모집생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한 자치 기구다. 현재 △개강총회△중간고사 간식 사업△총 MT 등을 준비 및 진행해 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빠른 학과 생활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별도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학생회 내에 통합 모집 담당 국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국서를 신설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재민(중국·중외통 23) 중국학대학 통합 모집 담당 국원은 "통합 모집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통합 모집생만을 위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회과학대학은 통합모집국서에서 상반기 통합 모집 MT를 진행하여 통합 모집생들의 학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어떠한 전형으로 입학했는지를 불문하고 이들 역시 우리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속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무전공 전형 입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길 바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자유전공학부와 통합 모집 전형 모두에서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이 공통으로 지적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경희대학교의 경우 자유전공학부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 및 학과 생활을 돕기 위해 개강하기 전인 2월 말에 '열린전공 Pre-camp'와 'SLS 부트 캠프'라는 행사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학 전 다양한 전공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SLS 부트 캠프에선 단과대학별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가져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고자 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우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기 위해 조 과 대표는 "학교와 총학생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에 기본적인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으나 명문화된 회칙 및 자치활동의 체계 부재로 인해 여전히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며 "타 과의 회칙이나 학생회 조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학년 진학 후에 학생들이

강의평가의 딜레마: 남긴 피드백, 돌아오지 않는 변화

우리학교는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성적 열람을 위해 강의평가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와 수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학교의 강의평가 제도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강의평가 운영 현황△강의평가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강의평가 운영 현황

우리학교는 매 학기 모든 학부 강의를 대상으로 중간 및 기말 총 두 차례에 걸쳐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평가는 해당 시험 종료 직후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중간 평가는 자율 참여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기말 평가는 성적 열람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 참여에 가깝다.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숫자형 평가뿐 아니라 서술형 의견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문항 수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평가의 결과는 단순한 학생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우선 교수자의 강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며 △강의 개선 지원사업△교원 업적 평가△재임용 심사 등 교내 주요 행정 의사 결정 시 참고 자료로도 기능한다. 이외에도 강의평가는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평가하거나 정책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학생 입장에서 해당 강의평가는 수업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일부 평가 결과는 차기 학기 수강 신청 전 공개되어 강의 방식이나 수업 난이도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교수자에게 수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자신의 교수법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강의평가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학생과 교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육 개선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의평가의 문제점

실제로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의평가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 '성적 열람을 위해'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는 20%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평가의 목적이 교육 개선보다 단순히 성적 열람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의평가는 많은 학생

들이 자신의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 무력감을 느끼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강의평가 결과가 실제 수업 개선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 '거의 없다'가 53.3%를 차지했고 '교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전달 여부가 불투명하다'가 6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이하 담당자)는 "우리 대학에 선 이미 학생들에게 강좌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동안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업 개선점 반영 여부의 경우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렵고 수업 특성이나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변화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며 "실제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그 과정을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교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자와 대학 행정기관 내에서도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백승훈 우리학교 중동연구소 교수(이하 백 교수는)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강의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평가 결과가 실제 수업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의문이다"며 "문항의 모호함과 성의 없는 응답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담당자는 "강의평가는 교수자와 학생에게 각각 수업 개선의 기회 및 역량 향상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많은 학생들이 성적 열람을 위해 강의평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단 비판에 대해 교육혁신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미나(Seminar)△실습△토론△프로젝트(Project) 등 강의 방식이 다양해지는데 불구하고 모든 수업에 동일한 강의평가 문항이 일괄 적용된 점에서 아쉬움이 제기된다. 물론 원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처럼 일부 구분은 이뤄지고 있지만 수업의 성격이나 활동 중심 여부에 따라 문항을 세분화하는 체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담당자는 "2021년 정책연구를 통해 △수업 설계△방법△성과 순으로 3요인 체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공동 요소 위주의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학생 중심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교수자의 전문성과 교육 목표가 희석될 수 있단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과학△정치 등 각기 다른 분야와

강의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 체계는 수업의 특수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수업 유형별 맞춤형 평가 문항의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강의평가 결과 조희의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는 교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기간 1주 전~수강 정정 종료시까지)동안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정보△수업 및 성적△강의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학교 A씨는 "강의평가 결과 학생들에게 공개된단 사실을 이번엔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관해 홍보를 묻는 질문에 "학교 차원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을 하는 것조차 하나의 방법이란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전했다.

일부 교수들 역시 강의평가의 부실한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학교 A교수는 "약답에 가까운 표현도 종종 있었던 것 같다"며 일정 성적 이상을 성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정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교수도 "서술형 문항이 교육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 감정적 해소 창구로 기능할 때 교수자로서 심리적 부담과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서술형 평가의 취지를 살리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터링(Filtering) 기준 마련이나 학생 대상 평가 지침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센터 역시 같은 우려를 표했다. 담당자는 "강의평가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교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표현은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에 삭제하거나 애초에 교수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

에 △강의평가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53.3%)△ 강의평가 결과의 학생 공개(20%)△중간 강의평가 제도 도입과 평가 작성 후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이 각각 13.3%씩을 차지했다. 즉 교수의 강의평가 반영 여부 및 학생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강의평가 실효성 향상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균관대학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성균관대학교는 강의평가 결과와 함께 교수자의 피드백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강의 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교수자가 직접 수업 반영 계획을 작성하면 다음 학기 학생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평가 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 유형별로 맞춤형 문항을 구성해 △실습△세미나△프로젝트 수업 등에 특화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강의평가 문항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습·실험 수업엔 실습환경이나 조교의 질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중심 수업엔 협업 구조나 과제 분배에 대한 문항이 추가된다. 이러한 세분화된 질문은 수업의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백 교수는 "△결과의 제한적 공개 및 해석 가이드 제공△수업 특성별 맞춤형 문항 도입△학생 대상 평가 교육 강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의평가가 교수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교육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처럼 다른 대학들은 강의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과 활용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는 강의평가를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학교 역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의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후기 입학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면접시간 공지	2025.4.23.(수) 15:00	2025.5.21.(수) 1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면접전형	2025.4.26.(토) 10:00	2025.5.24.(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5.9.(금) 15:00	2025.6.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5.12.(월) ~ 5.14.(수)	2025.6.9.(월) ~ 6.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산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다. 엔터테인먼트 - K-컬처
라. 디지털미디어융합(산학)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후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3.31.(월) ~ 4.11.(금)	2025.04.28.(월) ~ 5.09.(금)
면접전형	2025.04.26.(토) 10:00	2025.05.24.(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05.09.(금) 16:00 예정	2025.06.05.(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5.05.12.(월) ~ 5.16.(금)	2025.06.09.(월) ~ 6.13.(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운영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입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새로운 나라 다양한 경험

독일어에 대한 내 애정을 확인하고자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Universität Würzburg)에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대학교 진학 후 독일어를 처음 배우며 흥미가 커져 진로로 선택할까 고민이 됐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는 남들보다 이른 학기에 독일에 가게 됐다. 독일의 수많은 도시 중 유독 뷔르츠부르크(Würzburg)란 곳이 아름다워 보여 그곳으로 가게 됐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교환학생 변화가 생겼다. 소비자인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불편한 시간이지만 노동자인 누군가에겐 그 시간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저 가치관의 차이로 생각한다. 한국처럼 나만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구할 것인지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느리지만 나의 시간이 보장될 삶을 추구할 것인지의 차이인 것 같다. 한국에서의 삶은 소비

어 보고 싶다면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 있는 Schnitzelhaus Alte Münz 식당을 추천한다. 여행지는 계절에 따라 추천이 달라진다. 여름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거울에는 푸센(Füssen)을 추천한다. 하이델베르크는 워낙 도시 자체가 예뻐 구경만 해도 재밌고 푸센에는 디즈니(Disney) 성의 모티브(motive)인 노이슈반타인 성(Schloss Neuschwanstein)이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곤 한다. 다들 꼭 기회가 된다면 독일의 음식과 여행지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



오기 전부터 독일은 기다림과 예약의 나라란 말을 들곤 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 이해가 갔다. 물론 처음 갔을 때 스거주지 등록 예약비자 발급 예약비자 수령을 위한 기다림은 힘들었다. 그래도 초기 정착만 잘 해내면 매일이 비슷해 괜찮았다. 가끔 공휴일 전후나 일요일에 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그 전날 냉장고를 확인하고 마트를 가는 것을 제외하곤 하루 루틴(routine)이 정해져 있었다.

독일에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처음엔 일찍 문을 닫는 마트가 불편했고 운영시간이 짧은 관공서들이 짜증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버스가 자주 운행되지 않고 오히려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내다보다니 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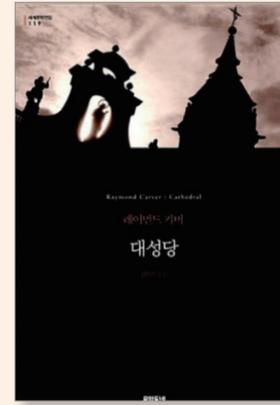


조예린(사범 · 독고 21)

미국

<대성당>

- 공감의 시작에 대해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눈을 감은 채로 그와 함께 그렸다” 미국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단편소설 '대성당'의 대사 중 하나다. '대성당'은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리는 순간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기 아내의 오랜 친구인 맹인 남성 '로버트'(Robert)를 처음 만나며 불편함과 거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로버트와 함께 대성당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버트의 시각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로버트는 세상의 표면을 보지 않고도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다. 반대로 화자는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선 늘 닫힌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어색하고 때론 불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로버트가 화자의 손을 이끌어 종이대성당을 함께 그리는 순간 소설 내내 묘사되지 않던 감정인 진정한 공감과 연결이 처음으로 발생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성당이란 공간이 두 인물 모두에게 실재하지 않는 것이란 점이다. 로버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화자 역시 티비 다큐멘터리에서 잠시 본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 속의 성당을 공유한다. 그것은 시각적 사실이 아닌 경험과 감정의 나눔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함께 그린 대성당 그림은 공감의 산물이다.

이 단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과연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단지 그를 보고 그의 상황을 듣고 동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감은 이해를 향한 '능동적인 참여'에서 비롯된다. 손을 맞잡고 함께 무언가를 그리는 일처럼 상호 작용과 시간 그리고 감정의 개입 없이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공감을 상대를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경험을 이해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야 한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정 타인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눈을 감고 낮선 세상을 함께 그려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은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4.02(수) ~ 04.16(수)	2025.04.30(수) ~ 05.14(수)
고사장 발표	04.23(수) 15:00	05.21(수) 15:00
면접전형	04.26(토) 10:00 예정	05.24(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8(목) 15:00	06.0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2(월) ~ 05.16(금)	06.09(월) ~ 06.1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마.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시스템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 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기타사항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의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2차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후기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면접일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6. 30(월)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 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후기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면접일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6. 30(월)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학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대학생 챗GPT 사용, 어떻게 쓸 것인가

△과제△리포트(report) 작성△시험공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의 이용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근래 확산 중이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단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챗GPT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챗GPT 이용과 인식 현황△챗GPT 이용에 관한 찬반 의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생 챗GPT 이용과 인식 현황

챗GPT는 인공지능 회사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용자는 채팅(Chatting) 및 음성인식을 통해 챗GPT에 질문하거나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챗GPT를 활용해 △문제 풀이△생각 참조△자료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대학생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발표된 동아인문학회 '챗GPT에 관한 대학생 이용자의 이용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 조사 응답자의 51%가 챗GPT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40%가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4.5%가 과제와 문제 해결에 집중적인 사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용도론 '검색 용도'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론 △문제해결 용도' 40%△과제 작성 용도' 26.1%△창작을 위한 용도'가 12.4%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실제로 우리학교 A 씨는 "전공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적인 구조 분석에 어려움을 겪은 문장을 챗GPT에 자주 물어본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아울러 A 씨는 "특수 언어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챗GPT는 그 원리와 수정 결과까지 정확히 알려준다"고 검색 용도로 챗GPT를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전했다. 성신여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B 씨의 경우 "디자인 과제를 참조할 때 챗GPT를 자주 활용한다"며 과제 및 창작을 위한 용도로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챗GPT의 활용에 관해서 많은 대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학업 및 취업 부문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이유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학업 및 취업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는 답변이 5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후로는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 습득의 장구가 다양해져서'가 47.8%△리포트 및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가 41.1%△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져서'가 33.2%를 차지했다.

하지만 챗GPT의 이용 확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했다. 앞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23.5%

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추가로 습득하고 향상해야 해서'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실제로 챗GPT는 응답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챗GPT가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인간의 선호도에 따른 답변을 하도록 유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챗GPT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이하 WP)의 기사를 꾸며내 미국의 한 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응답한 사건을 들 수 있다. 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 허위 사례와 출처를 지어내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이용에 관한 찬반 의견

대학생들이 과제 및 시험에 챗GPT 사용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챗GPT의 사용이 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보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 저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경우 '챗GPT에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란 이름으로 개설된 수업이 존재한다. 이 수업은 챗GPT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과 깊은 사유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인문학적 목적을 주로 삼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우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미래' 과목에서 챗GPT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과목은 과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설계돼 있다.

챗GPT가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단 점도 챗GPT 활용에 찬성하는 이유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챗GPT에 입력한 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문제 제작을 요청해 공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김나연(서양어·스페인 24) 씨는 "시험 범위를 입력하고 챗GPT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챗GPT를 활용한 맞춤형 피드백(Feedback)의 실제와 과제' 보고서에서 챗GPT를 통해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학습 진도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제 및 시험에서 챗GPT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역력하다. 그 이유로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제한해 학습 능력을 저하한단 점이 제시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챗GPT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유사한 'GPT 베이스(ChatGPT Base)'를 사용한 집단의 경우 인공지능 도구 없이 스스로 학습한 대조군보다 17%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연구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지팡이'처럼 의존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챗GPT의 도움으로 단기적인 성적 향상은 가능할지라도 학생들의 장기적인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단 의미다.

챗GPT의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대표적인 반대 근거다. 대학생들이 과제 및 자료조사를 위해 챗GPT가 작성해 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인공지능 모델 평가 스타트업인 미국 패트로너스 에이아이(Patronus AI)는 챗GPT가 인기 저서의 첫 구절을 그대로 복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챗GPT-4가 44%의 프롬프트(Prompt)*에서 책 내용을 정확하게 복제한 내용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사 콘텐츠를 챗GPT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오픈에이아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챗GPT의 텍스트는 온라인상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며 출처를 병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학습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제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챗GPT 출력물의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챗GPT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선 챗GPT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교육혁신센터에서 '베스트(Best) AI 활용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과 수업 단계별 AI 활용 지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업 활용 사례를 유튜브에 게시해 학생들이 수업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역시 '챗GPT 사용법 및 교육 분야 효과적 활용 방안' 온라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과제 및 시험에 챗GPT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선 학교별 챗GPT 사용 기준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3년 '부산대학교 교수·학습 활용 기준안'을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역시 지난 2023년 '인공지능 교수 학습에 대한 윤리 강령'을 발표하면서 학내 사용자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과제 제출 시 인공지능 활용 여부 명시를 비롯한 10개의 윤리 강령△인공지능의 맹목적 신뢰 및 무조건적 거부 반대△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 선별과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챗GPT 사용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성균관대의 경우 시험 중 교강사가 허락하지 않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인터넷 등 교강사가 금지한 전자매체를 검색하거나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로 보고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성균관대는 '챗GPT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학내 웹사이트(Website)를 따로 개설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및 표절 예방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사례를 첨부해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제공하고 있다.

역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활용해 악용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드워드 티안(Edward Tian) 프린스턴(Princeton) 대학교 학생은 '챗GPT 제로(ChatGPT Zero)'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표절 및 대필 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턴잇인(Turnitin)' 역시 'AI 감지 기능'을 활성화해 챗GPT가 작성한 문장의 97%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우리학교도 대학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턴잇인 표절예방장치를 제공 중이다. 또한 캐나다 영어 교사 다이나 페트로니스(Daina Petronis)가 학생들은 볼 수 없지만 챗GPT를 사용하면 감지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대필을 방지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양한 제도가 있겠지만 챗GPT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적절히 설정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챗GPT를 학습의 유용한 도구로써 더욱 지혜롭게 사용할 미래를 기대한다.

*프롬프트(Prompt):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게 특정 응답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자연어 요청

불법체류자, 우리 사회의 숨은 기둥이자 제도 밖의 존재

'불법체류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의 필수 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때론 범죄나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존재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대응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

고 있다. △불법체류자 현황과 구조적 원인△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체류자 현황과 구조적 원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미등록 외국인인은 약 42만 명으로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인의 약 18%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로 △건설업△농축산업△제조업 등 이른바 3D업종*에서 일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 노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연구인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작물 재배 농가의 402곳 중 258곳(64.2%)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1%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외국인 취업자는 약 5만 7천 명에 달하며 제조업 종사자는 약 37만 8천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불법'으로 간주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고용주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사기 문제이다. 고용주가 체류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베트남 기술 연수생 13명이 비자 연장을 위해 교육비와 기숙사비 명목으로 1인당 520만 원을 지불했으나 정작 비자 연장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불법적으로 압수했으며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비자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고용주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주요 요인이다. 비자 연장을 위해선 온라인 예약 및 수수료 납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고용주가 제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갱신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절차를 몰라 갱신에 실패하거나 고용주가 서류 제출을 지연해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및 제조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과 내국인의 근로 기피 현상은 미등록 외국인을 부추기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일부 사업 주들은 인력 충원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며 이는 결국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농촌사회학의 <농촌사회>에 등재된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에선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축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아 작물재배업에선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연중 인력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한기에 본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란 표현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리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이란 단어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종종 범죄 유발자나 복지 예산 낭비의 주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정하여 이는 결국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불법체류자'란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이러한 표현들이 차별을 악화시킨다며 개선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 속에서 이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단속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법적 절차△의료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큰 제약 받는다.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전

면 삭감하고 센터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건강 문제나 교육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울산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위해 별도로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기존 공공의료 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난 3월 16일 더나은미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대학생 A씨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 만료되며 출생 당시부터 미등록 상태가 되었고 정기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Pandemic) 기간엔 이들의 취약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많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격리△정보 부족△퇴직금 미지급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분 문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정부의 불법체류자 정책은 단속과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입국 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도 병행 중이다. 특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사례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광역단속팀과 이민특수조사대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처벌과 강제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이들을 사회의 음지로 몰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젠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회적 통합△인권 보장△제도적 정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하되 합법 고용을 실천하는 고용주에겐 세제 감면과 행정적 인센티브(incenitive) 제공 등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 안전 교육△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 교육△통역 지원 확대 등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이주민 대상 무료 진료소△이주 아동 교육 지원 △지역 주민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더 나은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인권 감수성△지속가능한 노동 구조를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들을 배제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제도와 인식이 함께 개선될 때 불법체류자 문제는 위기가 아닌 공존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D업종: △더러운(Dirty)△위험한(Dangerous)△힘든(Difficult)의 머리글자인 D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주로 제조업·광업·건축업 등이 꼽힌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하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으나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은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단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2심에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SK텔레콤, '100퍼센트 보상' 가능하나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 Telecom)은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에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해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MS)△단말기 고유식별번호(ME)△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천 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약 100만 개의 유심을 공급하고 다

음 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체 대상자가 2천 500만 명에 달할 것을 고려하면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피해 복제가 발생할 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경찰은 유심 유출에 대한 조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 한국 영화계 적자, 그 현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관객 수와 매출액은 각각 약 1억 천만 명과 1조 1,945억 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 대비 각각 55.7%와 65.3% 수준에 그쳤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3월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으며 매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6.8% 감소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Show Box)△CJ ENM 등 국내 투자배급사 내에서도 올해 개봉작 수

는 20여 편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영화계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침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Multiplex) 운영사인 CJ CGV는 지난달 수익성 개선을 위해 CGV 송파와 연수역점 영업을 종료했다. 메가박스 역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에만 1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국제 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지난달 28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하며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제4조에선 "쌍방 중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 사이의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는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군의 '쿠르스크(Kursk) 해방 작전' 투입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에서의 파병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2월 쿠르스크 지역에 3천여 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평화의 공간인가 분쟁의 시작인가?

지난달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선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란 1호 및 2호를 서해에 설치했으며 지난 2022년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어업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해 지역은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갈등 역시 이러한 경계 미확정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구조물 설치가 한중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강준영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및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강준영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및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

Q1.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은 정확히 어떤 것이며 각각 언제 설치되었나요?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과 2024년 선란 1·2호를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무단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면 잠정조치수역에선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어떤 행위나 시설물 구축은 불법입니다.

Q1-1. 선란 관리 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이 선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은 헬기 착륙장까지 있는 고정식입니다. 이 시설은 1982년 건조돼 중동에서 사용하다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것으로 높이 74m에 폭 86m 무게는 9,000톤이 넘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 고정 시설에 10여 명을 상주시키면서 선란 1·2호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선박을 감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선 어떤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서해 지역은 한중 간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해 대부분 수역은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된 부분에 대해선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경계 획정을 유보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 양국이 공동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다른 어떤 행위도 금지되며 조업 조건과 구역에 대한 사전에 협의와 통보가 요구됩니다.

Q3. 중국은 서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왔는데 이전의 주요 설치 사례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에도 서해에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우리나라 정부 항의를 받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활동을 잠시 중단했지만 이후 시설물들을 확대·개조하며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Q4.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근본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득과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1982년부터 해양 강국 건설의 계획을 세웠으며 시진핑 체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해양 권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의 영토로 선포해 아세안국가들과 충돌을 빚고 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이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공해(public sea)란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해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해상 지배력 확대의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 내해화(內海化) 작업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해상 영향력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억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해 지역에서 해상 지배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억지하겠다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Q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우리나라 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30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계선 확정 시 국제적 관례인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던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영토 면적과 해안선의 길이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해 경계를 정해야 한다던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평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고 중국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국제관례에 따른 경계 확정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Q6. 중국의 서해 지역 구조물 설치가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구조물을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조물 철거 요구나 중국 영해로의 이전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조물 주위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중간 수역에 중국 구조물과 인공섬이 조성되고 그곳에 중국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이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또 다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활동이나 한미 연합 훈련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7.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3차 한중 해양 협력 대화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통해 영향력을 넓힌 것처럼 서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 영토 확장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중국이 이를 근거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서해 해양주권 보호법' 관련 국민 동의 청원에 우리나라 국민 약 8천 명이 동의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을 앞으로 2~3년 내 최대 12기까지 늘려나갈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관리 시설'도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큼니다. 또 한중간에는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 행위를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조업 어선이 양국이 합의한 수치를 크게 넘어서는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에 여기에 기존 동경 124° 30분으로 설정된 중간선을 임의로 124°로 변경해 설정하고 정례적인 해상 훈련을 물론 중러 연합 훈련까지 진행하는 등 군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8. 현재 서해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서해가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인접해 있고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대 안보 요충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업 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업협정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 구조물이라면 철거를 하거나 적어도 중국 영해 내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증폭은 양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양경계확정 체결에 양국의 적극적인 협의 추진과 함께 중국 정부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Q9.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중 어업협정이 명시한 잠정조치수역은 서해를 우리나라와 중국이 평화롭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독자적 행동은 단순한 어업활동을 넘어 양국의 경계 미확정 수역에서 실질적인 해상 지배력을 확대하는 '회색 지대'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맞대응 차원에서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고△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
 **잠정조치수역: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
 ***항행: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님.
 ****실효적 지배: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1953년 8월 30일 UN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동서해 해역에 설정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학보하는 여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말은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힘을 잃는다. 말이란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 상대가 부재할 때 생기는 특수한 형태를 '혼잣말'이라고 부른다. 즉 혼잣말은 일종의 결핍을 전제로 한다. 반면 글은 누가 읽지 않더라도 남긴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완성된다. '혼자글'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말은 양날의 검이다. 상대에게 바로 닿을 수 있는 만큼 그 위험도 크다. 한 번 벌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남기기도 한다. 반면 글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몇 번이고 다듬을 수 있다. 그렇게 정제된 깨끗한 알맹이를 세상에 꺼내놓는다.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활자를 나열하고 문장을 조합하는 일이 아니다. 내 안의 진심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이다. 그 안에는 내가 꺼낸 말과 꺼내지 못한 말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꺼냈지만 외면당한 말들과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가수 '검정치마'의 '음악하는 여자'엔 이런 가사가 있다. "가사 말에 진심을 담지 마. 사람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어." 이어지는 2절에는 "가사 말에 진심을 담지 마. 사람들은 알아도 아는 척 안 해." 가사에 진심을 담지 말라는 그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누구보다도 가사에 진심을 담아왔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뒤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응축해 낸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글쓰기는 역동적이고 난잡한 세상에 나만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건 세상만이 아니다. 내 머릿속조차 이런저런 생각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그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닿을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림이 느껴진다.

잔디광장 벚꽃나무에 몽우리가 질 무렵 학보사실로 향하는 승강기에서 마주친 학생들의 손에 학보가 들려있었다. 그 호수에는 캠퍼스 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와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찰나의 순간동안 내 손을 거쳐 간 활자들이 눈 앞을 지나갔다. 나는 학보사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글은 남긴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남긴 글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읽힐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검정치마가 가사에 진심을 담듯 내가 글에 진심을 담는 이유다.

외대학보에서 총 세 번의 발행 동안 일곱 편의 기사를 써냈다. 매 기사마다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써 내려가고 있지만 조판 후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더 나은 문장은 없었는지 몇 번이고 곱씹는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가치 있는 기사'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재학생 입장에서 학내 사건을 보도하는 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란 쉽지 않다. 기사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선 거듭 고민해서 써 내린 문장을 다시금 고쳐 쓰며 때로는 포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내 바이라인(By-line)이 달린 기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기다린다.



박지연 기자

[책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성장 속에 남는 순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16살 소년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가 퇴학을 당한 뒤 며칠 동안 뉴욕을 떠돌며 겪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사회△학교에 환멸을 품은 홀든은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로운 떠돌이 생활을 이어간다. 사람들과의 맹목적인 만남은 오히려 그의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그는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순수한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홀든은 여동생 피비(Phoebe)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불행해 했던 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였음을 어렵게 깨닫는다. 변화와 상처를 두려워했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며 홀든은 조심스럽게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몸짓을 시작한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하지만 흔들림 속에서 자라나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이 소설은 홀든이라는 인물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 지나야 하는 그 불투명한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비춘다. 세상이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느껴질수록 홀든은 더욱 막연한 이상과 순수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

내가 처음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던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입시라는 거대한 제도 앞에서 숨 막히던 나는 홀든이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반항과 냉소에 깊이 공감했다. 그때의 나는 세상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필요에 따라 제도에 순응하고 사회의 규칙에 내 삶을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나만의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타협과 순응 속에서 편안함을 얻는 대신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낯설게 바라보던 시선은 희미해졌다. 다시 홀든을 떠올리며 나는 가끔 내가 놓쳐버린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세상과 맞서는 일은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해지는 순수함을 조금은 붙잡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잠시 쉬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길로 돌아가는 과정 자체를 모두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성장임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조속하길 요구받고 때로는 자신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나는 그저 빨리 성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홀든처럼 세상의 규칙에 반항할 때도 있지만 그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영화 '잉글랜드 이즈 마인'을 보고] 실패의 시간을 버티는 일

1980년대 영국 록 밴드 '더 스미스(The Smiths)'의 프론트맨으로 기억되는 스티븐 모리세이(Stephen Morrissey, 이하 모리세이)는 우울하고 고독한 감성을 노래하며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영화 '잉글랜드 이즈 마인(England is Mine)'은 성공 이후의 화려한 시절이 아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던 시절에 누군가가 되어보려고 애쓰던 젊은 모리세이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모리세이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을 담담히 따라간다.

주인공 모리세이는 영국 맨체스터 외곽의 우울한 일상 속에서 타자기 앞에 앉아 음악 칼럼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를 동경하는 그는 끊임없이 노랫말을 쓰고 밴드를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어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다. 어렵게 결성한 밴드는 금세 해체된다.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은 모리세이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결국 생계를 위해 취직한 세무서에서도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영화는 모리세이를 대단한 야망가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년으로 그린다. 그는 우울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선 고개를 가웃하게 될 만큼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모리세이를 조롱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그가 외부 세계에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그의 흔들림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싼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었던 모리세이는 타인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다시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일어난다. 모리세이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의 중심엔 어머니가 있다. 꿈을 좇다 벽에 부딪혀 방에 틀어박힌 그에게 어머니는 말한다. "내가 왜 네게 음반과 타자기를 사줬는지 기억하니? 한 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처럼 되지는 마. 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이 장면은 모리세이가 다시 글을 쓰고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모리세이는 특별한 인물이라기보다 운 좋게 꿈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청년이었다.

영화는 끝까지 록스타로 성공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극적인 성공 후의 화려한 무대도 관객의 환호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모리세이가 밴드 '더 스미스'를 함께 만들게 될 조니 마(Johnny Marr)를 만나며 영화는 끝난다. 영화는 '성공'보다 '버티'에 주목한다.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이 모리세이인 인물을 만든 것이다.

'잉글랜드 이즈 마인'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실패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가. 이 영화는 어떤 위대한 성취보다 나를 견디게 하는 무언가를 단 한 가지라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실패 속에서도 그 길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무대 위에 설 수 있던 희망을 모리세이의 인생을 통해 전한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대표작으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있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1102호 학보를 읽고

혼란 속 언론의 역할

꽃이 피는 길 시샘해서 온 추위라기엔 너무도 매서운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전례 없는 4월의 폭설이 내리더니 이번엔 불길기 우리 산림과 문화재를 집어 삼키고 있다. 이렇듯 날씨도 국내외 정세도 흉흉한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득 외대학보가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어떤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도서관에 놓인 신문을 집어 들었다.

3면에선 과거 다뤘던 도서관 자료 훼손 및 연체 문제를 되짚었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낙서가 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있다. 연체 또한 필요할 때 자료를 구할 수 없게 해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방안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읽는 책이기에 각자의 책임감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4면에선 교재 불법 복제 문제를 제시했다. 교재를 복사 또는 스캔(Scan)하면 비용 부담이 훨씬 줄고 태블릿(Tablet) 컴퓨터 등 기기를 이용해 가볍게 볼 수 있는 편리한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인재 양성 교육의 요람인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질 단 점이 유감이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대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이 크단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교재비가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학기가 끝나면 다시 사용할 일도 적어 교재비는 학생들의 주머니에 큰 지출을 야기하곤 한다. 기사에서 제시한 전자책 보급이나 중고 교재 거래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법률을 준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길 기대한다.

백승준(영어·영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102호 학보를 읽고

'나'란 봄을 찾아서

만개한 벚꽃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봄을 채워나간 가운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번 제 1102호 독자 후기를 남긴다. 이번 호에선 △우리학교 도서관 문제△잉글리시 존(English Zone) 문제△사이버 레커의 사회적 문제△소프트웨어(Software) 강의 지원 부족 문제△수업 교재 불법 복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3면에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내 영어 학습 프로그램 잉글리시 존의 운영 실태를 조망한다. 공강 시간을 활용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의무 이수 공간으로 변질됐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글캠 학생들의 영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설된 프로그램인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점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

이어서 같은 면에선 우리학교 도서관의 자료 훼손과 연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내 도서관 측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들은 도서관 자료 훼손의 문제로 △문제 풀이 흔적△미필 및 형광펜 표시△표지 찢어짐△오염 등을 언급하며 불편함을 토로한다. 또한 연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기사에서 제시되고 있다.

4면에선 수업 교재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이는 우리학교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꾸준히 제기 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흥미를 끌었다. PDF 불법 복제

한소영(통번역·태국어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는 업연히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편리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5면에선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는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습실 부족과 평가 방식의 문제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관련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교육 환경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지속적인 실습실 확충과 필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실용성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9면에선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조희수를 위해 △사실 왜곡△사적정보만 초점을 맞춘 정보 전달△허위 사실 유포 등을 마다하지 않기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법적 및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해당 기사에선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등 외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 1102호도 기자들의 정성 어린 열정이 담긴 멋진 글들이었다. 앞으로도 생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외대학보 기자들의 아름다운 봄을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숨 고르며, 학교의 내일을 준비하다

국·부장 고정칼럼

시험이 끝난 후 첫 회의와 마감을 마치고 다시 빈의자 앞에 앉았다. 시험 기간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르며 기말의 첫 페이지를 여는 신호와도 같다. 그간 놓쳤던 학내 이슈들을 다시금 짚어보며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학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학생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일의 학교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다시 앉았다.

4면에선 글캠 총학생회 선거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의 현실을 다룬다. 지난해 발생한 총학생회 미선출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학생 자치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를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공약에 대한 회의△총학과 학생 간의 소통 단절△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 등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표 선출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 자치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공약의 현실성△실행력△투명한 소통 구조 마련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된다.

이어지는 5면에선 강의 평가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룬다. 전면적인 평가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그 결과가 강의 질 개선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수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피드백이 제공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평가 결과의 실질적 활용과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질 때 강의평가는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다음으로 7면에선 대학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의 학업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레포트 작성

△아이디어 도출△자료 정리 등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윤리적 문제와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만으로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활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는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사용자의 태도와 책임감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윤리 교육과 실질적 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9면에선 한국과 중국 간 어업 협정으로 설정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 수역은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실제론 감시가 어려워 한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가까운 구조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과 수역 재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간 협상 재개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다. 이에 대해 강준영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및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전략학과 교수는 단순 단속 강화보다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불편하고 때론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학교와 사회를 향한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소희 부장 09sohee@hufs.ac.kr



타는 목마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소위 말하는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촉박하게 돌아가는 대선 시계 속에서 과거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온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공약 하나는 대한민국 전역을 들쭉이게 만들고 공식 석상에서의 작은 발언 하나는 모든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속보로 다룬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치'란 단어만 나와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민감한 시기 속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선고는 양 진영 간 정치적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른바 진보 진영은 이를 사법부의 공격으로 간주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난세(亂世)의 형국'이란 단어보다 '작금의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있을까.

정치란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정체 하에서의 '정치행위'는 민의의 총합이 강력한 힘을 만들어 국가의 정책적 결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 국민과 국가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엮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정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이다. 정치는 다른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는 꿈과 희망을 줘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세심히 조율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는 매우 위대한 결정이다. 어느 일방이 상대를 △굴복시키거나△무시하거나△복종시키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에서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이념 자체의 핵심인 △대화△양보△이해△존중△타협이란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이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할 당위적 원소(元素)이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선(最高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라. 이미 양 진영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을 그었다. 자신과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자신의 '적'이자 '정치적 제거 대상'이 됐다. 불통의 대통령에게 거대 야당은 무차별적 탄핵으로 응수했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대통령은 결국 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탄핵 이후에도 서로 대화와 타협의 방식은 배제한 채 각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마구잡이로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양 진영 선두주자들의 발언에선 '국민'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현안 질의나 공약 언급 시엔 항상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혹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이란 무엇일까? 과연 자신들과 뜻이 다르고 지지하는 진영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일까?

앞으로도 이 나라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생각하건데 애석하게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이미 모두가 귀를 닫았는데 대화할 땅을 리가 만무하며 그렇기에 타협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서로의 차이를 전제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정치는 지금의 우리나라엔 없다. 어쩌면 그렇기에 나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금 누구보다도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기자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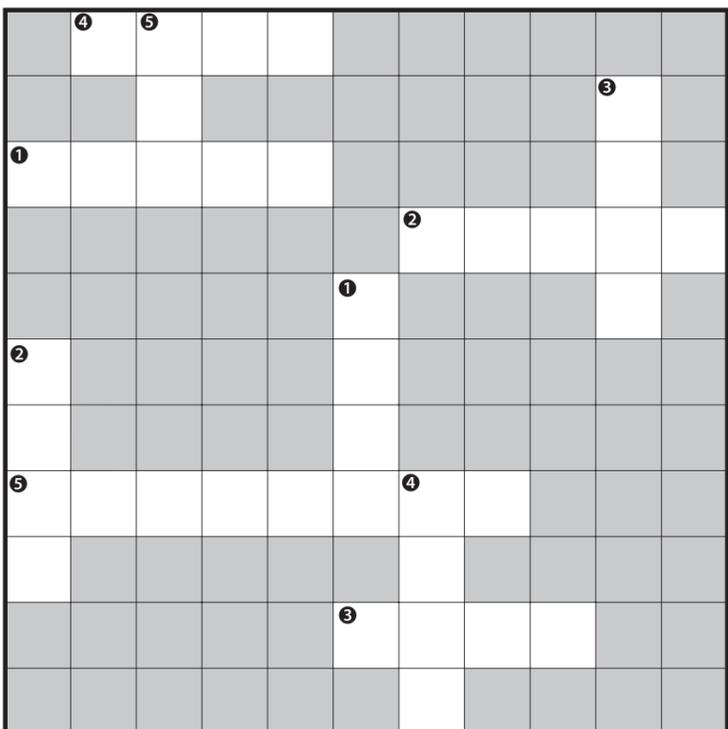
- 학보 탈출 2회 전.. 행복하고 싶어요

- 항상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중

- 편집장님 집에 보내주세요

- 책상 서랍에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 누구냐

십자말풀이



가로

1.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5면 참조)
2. 독일 전통 돼지 고기 요리로 바이에른 지방에서 즐겨 먹는다. (6면 참조)
3. 스티븐 모리세이(Stephen Morrissey)는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10면 참조)
4.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중남미 지역의 환경과 생태문명에 대한 지속가능한 ○○○○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2면 참조)
5. 유네스코(UNESCO)가 2023년 ○○○○○○○○으로 지정한 송고란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2면 참조)

세로

1. 우리학교 ○○○○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의 명칭은 GTEP 사업단이다.(1면 참조)
2. 우리학교는 창의적 ○○○○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4면 참조)
3. 우리학교의 대표 언론으로 1955년 창간 이후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기관이다. (1면 상단 참조)
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은 ○○○○에 대한 조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8면 참조)
5. 강의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5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역사의 숨결을 소설로 담는 김진명 작가를 만나다

김진명(법 76) 작가는 1993년 첫 소설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하며 문단에 데뷔한 이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그는 명실상부한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김진명 작가는 데뷔작부터 시작해 늘 우리 사회의 굽직한 이슈와 역사의 흐름에 깊이 천착하며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소설이란 형식을 빌려 풀어내고자 했다. 그는 스고구려스글 자전쟁스풍수전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을 통해 독자와 소통해 왔다. 김진명 작가의 인생과 그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옛날엔 진학 지도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 시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 법이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해 어떤 것을 규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것이고 철학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철학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를 철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진학해 보니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법학과는 암기용 실전법을 배우고 사법고시를 치는 것이 주목적인 학과였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법학과에 입학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법학과에서 배운 논리와 추리 기법이 소설을 쓸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Q2. 작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정체성은 사회와 공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또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묻기 전 '작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해본다면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적 측면에서 작가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가 의식이 생겨 우리나라에 만연한 문제들에 대해 온전히 순응하기보단 한 걸 더 깊숙하게 들어가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Q3. 첫 소설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데뷔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데뷔한 1993년 당시엔 우리나라 사회의 절대 악은 북한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수천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왜 최고의 악으로 맞서 있어야 되냐는 반감과 북한은 중공 및 소련의 대변자가 되고 남한은 일본과 미국의 대변자가 돼서 대치하는 것이 옳은가란 반감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계기는 '해무기'죠. 북한이 해무기를 개발한단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 원격 폭격을 한단 사실이 기정사실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왔냐는 것이었습니다. 큰 주제가 대두되면 여러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선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갑갑한 심정이었습니다. 5천 년 역사를 같이해 온 민족으로서의 목소리는 왜 안 나오냐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민족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겠다고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Q3-1. 데뷔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출간 후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데뷔작의 성공이 이후의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분이 매우 좋았고 데뷔작의 큰 성공은 이후의 활동에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마련이지만 첫 소설이 어떠한 성공을 거뒀으니 다음 소설을 낼 때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선 세속과 실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전 그런 철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첫 소설이 성공했다고 해서 '두 번째 소설도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명상록'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헛된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는 견인주의적 철학이 담겨 있고 저는 이를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Q4. 데뷔작의 출간 이후 사회 현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미국과 중국의 대리인이 돼 대치해야 하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군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다'는 다른 시각이 생겼습니다.

Q5. 소설을 집필할 때의 과정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주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토해 내놓을 나의 시각은 무엇이냐'를 다루며 다수가 생각하는 것을 깰 수 있는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멋진 언어를 구사하는 데 집중한 글이 많지만 오랫동안 힘 있고 깊이 있게 활동하는 작가가 별로 없죠. 작가는 비판 의식을 갖춰야 하고 작가 의식은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힘을 키운 뒤에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5-1. 작가님의 작품은 여러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데 작품 속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배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설은 아주 간단히 말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소설이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장치 중 하나인 이유는 보통 거짓말은 금기시되지만 거짓말을 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진실을 소설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추구하는 것은 약자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킬 힘이 없는 진실은 보통 강자에 의해 묻혀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된 사실과 나열된 사실 속의 내재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제 소설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진실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체성이 희미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중심이 되는 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중점을 맞춰 소설을 씁니다. 소설에서 약간의 허구는 수단일 뿐 제가 다루는 것은 '진짜 진실'입니다.

Q6.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많이 다루시는 이유와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제가 다루는 것이 주로 목격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를 독자들이 잘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추리 기법과 살인사건을 사용하고 살을 엮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힘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Q7. 독자로부터 받은 가장 인상 깊었던 피드백은 무엇인가요?

'평생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작가님 덕분에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와 '애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가 됐다'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도소 내 베스트셀러(Best Seller)가 제 책들인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접시꽃 당신'이란 시를 쓰신 도종환 전 문화부장관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교도소에서 변하지 않고 인기 있는 두 작가가 있는데 저와 당신입니다"고 하시더군요.

Q8.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문학의 시간과 공간을 훑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

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미를 확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문학 또한 우리 존재와 역사를 선한 쪽으로 규정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9. 향후 출간 계획이나 문학 활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고구려' 10권을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운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현재 중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과학 기술이고 또 하나는 정신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신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가치관이 부족하고 심지어 중국의 흡수까지 염려할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설을 선택했습니다. 소설을 통해 국민들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고국과 민족의 위대한 혼과 떨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삼국지의 작은 인물은 다 알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선 잘 모르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려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고구려'를 삼국지보다 재밌게 쓰는 것입니다. 한민족을 문치게 하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작가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소설△자질△천재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죠. 프로 세계에선 자질과 소질이 아닌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일단 성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 방향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를 지망하는 후배뿐 아니라 우리학교 후배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SAMSUNG



진정한시폰
Galaxy S25 | S25+
Galaxy AI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를 받기에, 파손 보장까지! samsung.com

1년 후 사용하면 단말기를 반값 시 최대 50% 할인까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값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보험을 통해 지급액 월액 시 5% 서비스 제공을 구매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인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자발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월 적용 불가, 특정 미사용 제품 제외 모두 해당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갤럭시 S25, 갤럭시 S25+이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